

제 목	국 문	한국인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에 관한 환자 대조군 연구 : 성적 전파 가능성을 중심으로		
	영 문	Case-Control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Uterine Cervix Cancer in Korea :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exual Relationship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유근영 <sup>1)</sup> , 김동현 <sup>2)</sup> , 구혜원 <sup>3)</sup> , 송용상 <sup>4)</sup> , 강순범 <sup>4)</sup> , 이효표 <sup>4)</sup>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<sup>1)</sup> ,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<sup>2)</sup> , 인제대 보건대학원 <sup>3)</sup> ,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<sup>4)</sup>		
	영 문	Keun-Young Yoo <sup>1)</sup> , Dong-Hyun Kim <sup>2)</sup> , Hye-Won Koo <sup>3)</sup> , Yong Sang Song <sup>4)</sup> , Soon Beom Kang <sup>4)</sup> , Hyo Pyo Lee <sup>4)</sup> <i>Seoul Nat'l Univ Dept of Prev Med<sup>1)</sup>, Hallim Univ Coll of Med<sup>2)</sup>, Inje Univ School of Publ H'lth<sup>3)</sup>, Seoul Nat'l Univ Dept of OB &amp; Gyn<sup>4)</sup></i>		
분 야	역 학	발 표 자	구혜원 (전공의)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 0 ), 연구중 (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자궁 경부암은 우리 나라 여성 암 중에서 1-2위로 계속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발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궁 경부암에 대하여는 「우리나라 인구에서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가?», 「1950-60년대 외국에서 연구되었던 위험요인들이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집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?», 그리고 「성적 전파에 의한 가능성은 있는가?」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.</p> <p>본 연구는 『한국인에서 자궁 경부암의 위험요인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의 관련성』에 관한 대형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,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여성에서 자궁 경부암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 특히, 성적 전파의 가능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시도된 환자-대조군 연구이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1992년 9월 이후부터 1995년 5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부인과적 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20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 따라서 환자군은 동 기간동안 새로이 진단받은 환자들로, 이들 잠정적 연구대상 중 자궁암 검사에서 pap class II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병리-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상피내종양 (CIN) 및 편평상피세포성 자궁 경부암으로 확진된 284명을 최종 환자군으로 하였다. 건강 대조군은 연구대상 중 환자군과 동일 방법으로 검진한 결과 상피내종양 (CIN) 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여성 939명으로 정하였다. 이들 대상 중 다른 종류의 암에 걸린 병력이 있는 대상을 제외한 891명이 최종 대조군이 되었다.</p>				

### 3. 자료 수집

자궁 경부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는 연구의 전체 기간동안 조사경험이 풍부한 훈련된 간호사 1인에 의하여 수집되었다. 모든 설문조사는 부인과적 검진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시행되었는 바, 이는 면접조사자 및 피면접자가 환자군에 속하는지 대조군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. 구조화된 설문서를 이용하였는데, 본 연구의 중심 가설이 개인의 성생활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면접대상 여성들이 외부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히 응답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외래의 독립된 방에서 직접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, 성생활과 관련된 문항에 한해서는 본인이 먼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이차적으로 직접면접을 시도하는 이단계 방법을 병행하였다.

조사된 변수는 성적 전파에 관계된 변수로서 첫 성교시 나이, 성 접촉자수, 과거 성병 치료력, 남편의 성병 치료력, 출산 후 첫 부부관계까지의 간격, 남편 포경 여부 등 이었으며, 이외에도 자궁 경부암의 발생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학력, 가족력, 흡연력, 초경연령, 생리규칙성, 폐경연령 및 이유, 결혼연령, 처음 및 마지막 출산시 나이, 수유력, 유산력, 피임력 등을 조사하였다. 동시에 이들 대상으로 부터 채취한 자궁경부 탈락세포를 이용하여 human papillomavirus 16- 및 18-아형에의 감염여부를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으로 검사하여 성적전파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.

### 4. 자료 분석

환자군과 대조군간의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. 연속적인 변수는 그 주변도수 혹은 의학적인 근거에 따라 범주형 자료로 변환하였으며, 단변수 분석단계를 거쳐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 변수를 선별하였다. 이외에도 생물학적으로 의미있는 변수 및 건강행태 관련 변수를 보조변수로 하여 성적 변수와 자궁경부암과의 관련성의 정도를 선형로지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odds ratio 로 평가하였다. 추정 위험도의 통계적 유의성은 독립변수가 양분성인 경우에는 구간추정법에 의해, 그리고 세가지 이상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likelihood ratio test for trend 로 검정하였다. 이상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PC-SAS 및 EGRET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